

교정치료환자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

이 승 희

수석치과기공소

A Study on Self-Esteem of Orthodontic Patients in Daegu

- Focused on Daegu region -

Seung-Hee Lee

Dental Lab, Su Seok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orthodontic treatment on the self-esteem of the Patients who take orthodontic treatment. Methods: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124 Patients from selected orthodontic dental clinics in Daegu Metropolitan city to evaluate the factors in what demographic sociological character of Patients and character of orthodontic treatment affect to self-esteem. Each subject was evaluated with the scale of self-esteem developed by Cho Bo Ga and Cheon Gui Yeon(1993) and compared by classifying overall self satisfaction, social self-esteem, domestic self-esteem. Result: Results show the factors of self-esteem was high when subjects are highly educated, have high family income and have good social relationship after orthodontic treatment.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orthodontic treatment can affect patient's self-esteem.

●Key words : Self-esteem, Orthodontic treatment

교신저자	성명	이 승 희	전화	010-2538-2857	E-mail	cancan01@hanmail.net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113-235번지				
논문접수	2009. 11. 23		수정재접수	2009. 12. 10		

I. 서 론

최근 치의학 급속한 발전과 사회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일반인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외모가 일상생활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여 외모에 대한 현대인들의 집착은 단순히 자기만족의 단계를 넘어서 자아정체감의 형성이나 심지어는 사회생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금룡, 1998).

근래, 외모의 향상과 정신, 사회적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치과 교정과를 내원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박경아, 2007). 교정치료는 치과 진료분야 중에서 가장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선택치료라는 점에서 의과중 성형수술 분야와 비견 될 수 있다 하겠다(이신재 등, 2002).

부정교합이란 교합의 기능을 구성하는 치아, 악골, 근육 및 이에 분포된 신경계와 조직의 복합체가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저작기능, 언어, 악골의 정상발육 및 악관절 근육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 악관절 장애를 줄 뿐만 아니라 심미성과 관련된 사회심리학적 문제점을 발생 시킬 수 있다(양규호와 최남기, 2000). 교정치료의 발전으로 치아건강의 증진, 외모의 심미적개선, 심리적 개선 등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교정치료의 수진율은 8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되어 왔으며(곡덕부 등, 1989; 백형선 등, 1995), 안모의 심미성의 개선을 위하여 교정치료를 받는 경향이 높아졌다(김송숙, 1999). Gosney(1986) 와 Kilpelainen(1993)는 교정치료의 동기유발은 환자나 가족의 심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Gosney, 1986; Kilpelainen, 1993).

부정교합은 성장과 발육의 이상과 저작과 같은 기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문제와 나아가서는 심리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여 사회활동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치료시 기대하는 것은 기능적인 면뿐 아니라 심미적인 개선 및 사회 심리적 이득이라 하였다(Secord, 1959; 손우성 등, 1998). 교정치료의 치료효과 중의 하나는 치열과 안모의 심미성을 개선하여 심리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정민호, 2007). 안

모의 결함은 열등감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김송숙 등, 2000). Macgregor(1977)에 의하면 비정상적 안모는 기능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더라도, 사회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준다고 하였다.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더 클수록, 부정교합에 대한 인지도가 클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치료 욕구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치료 받기를 원하며(강혜경과 유영규, 1992)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 스스로에 대한 평가(selfconcept)나 자존감(self-esteem)이 저하되고 반대로 좋은 교합과 안모를 가진 경우에는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미 나온 바 있다(Shaw, 1980; Lagerstrom, 2000; Thompson, 2004).

외모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문화, 인종,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Crystal, 1998), 외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자존감 역시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rown, 1998). 교정치료가 주는 심리적 효과는 사람들이 느끼는 매력과 외모가 갖는 밀접한 연관성과 스스로가 자신의 치아배열이나 입모양 등을 보면서 자기자신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함으로 인한 자존감이나 자신감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생각한다(정민호 등, 2008). 부정교합을 가진 경우 자신감이 결여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Shaw, 1991). 교정치료는 외모의 향상만이 아니라 교정치료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개인의 사회활동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정치료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정치료가 교정치료 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교정환자들의 심리상태를 인지하여 교정환자의 상담과 교정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정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을 비교한다.
- 둘째, 교정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교정치료특성과 자아존중감의 연관성을 알아본다.
- 셋째, 교정환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본다.

II. 연구대상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구에 소재한 교정전문치과 5곳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기간은 2009년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143매가 회수(회수율 71.5%)되었으며, 이 중 답변이 불명확하거나 기재 누락 및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19매를 제외한 124매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1. 연구 도구

연구에 이용된 측정도구는 자아존중감에 관한 23문항, 일반적 특성에 관한 6문항, 교정치료와 관련된 일반사항 4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지양식, 정서, 신념 행동 등의 반응양식인 긍정적, 부정적인 태도로서 의미 있는 사람들 특히,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 검사(Self-Esteem Inventory)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Coopersmith(1967)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3개 하위차원 변수들을 이용하였다. 문항별로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6문항, 사회적 자아존중감 9문항, 가정적 자아존중감 8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을 부여하였다. 평균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Table 1 self-esteem category

Parameter	Component	Category
self esteem	general self esteem	나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믿고 나갈 수 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할 수 있다. 내 문제는 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sociable self esteem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나에게는 친구가 많다.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좋아한다. 나는 남을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좋은 친구이다.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을 귀담아 들어준다. 친구들은 주로 내 생각에 따른다. 나는 원하면 항상 친구를 사귄다.
	domestic self esteem	부모님은 내 기분을 잘 맞춰 주신다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주신다 나는 집에서 상당히 행복하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진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 우리 가족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 나는 좋은 아들(딸)이다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만하다

2) 일반적 특성

교정치료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종교, 가족의 월수입 등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교정치료와 관련된 일반사항

교정치료와 관련된 일반사항 문항은 교정치료의 동기, 교정치료의 권유자, 놀림 받은 경험, 교정 치료 후 자신감 변화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교정치료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둘째, 교정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교정치료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보기위해 t-test 및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2과 같다.

성별은 남자는 27명(21.8%), 여자는 97명(78.2%)로 나타났다. 연령은 15세 이하가 28명(22.6%), 16세~20세가 35명(28.2%), 21세~25세가 40명(32.3%), 26세 이상이 21명(16.9%)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 18명(14.5%), 사무/관리직 10명(8.1%), 서비스/판매직 6명(4.8%), 학생 80명(64.5%), 주부 3명(2.4%), 무직 7명(5.6%)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12명(9.7%), 중학교 12명(9.7%), 고등학교 30명(24.2%), 대학교 68명(54.8%), 대학원 2명(1.6%)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족 소득은 199만원 이하 7명(5.6%), 200만원~299만원 34명(27.4%), 300만원~399만원 21명(16.9%), 400만원 이상 62명(50.0%)로 나타났다.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Parameter	Number(N)	Percentage(%)
Gender	Male	27	21.8
	Female	97	78.2
Age	≥ 15	28	22.6
	16~20	35	28.2
	21~25	40	32.3
	26 ≤	21	16.9
Occupation	professional	18	14.5
	official/administrative	10	8.1
	service/salesman	6	4.8
	student	80	64.5
	housewife	3	2.4
	inoccupation	7	5.6
Education	Primary school	12	9.7
	middle school	12	9.7
	high school	30	24.2
	university	68	54.8
	graduate school	2	1.6
Religion	christian	45	36.3
	catholic	6	4.8
	buddhist	35	28.2
	els	23	18.5
	none	15	12.1

Characteristic	Parameter	Number(N)	Percentage(%)
Family income (10,000 won/month)	≥ 199	7	5.6
	200-299	34	27.4
	300-399	21	16.9
	400 ≤	62	50.0
Total		124	100

2. 교정치료와 관련된 일반사항

교정치료의 목적은 발음 6명(4.8%), 칫솔질 4명(3.2%), 외모 97명(78.2%), 음식물 섭취 3명(2.4%), 소리나 통증 3명(2.4%), 기타 11명(8.9%)로 나타났다. 교정치료의 권유자는 본인 56명(45.2%), 친구나 동료 16명(12.9%), 가족·친지 43명(34.7%), 치과의사 7명(5.6%), 기타 2명(1.6%)로 나타났다. 놀림 받은 경험은 전혀 그렇지 않다 11명(8.9%), 별로 그렇지 않다 9명(7.3%), 그저 그렇다 53명(42.7%), 약간 그렇다 41명(33.1%), 매우 그렇다 10명(8.1%)로 나타났다. 교정 치료 후 자신감의 변화는 매우 나빠졌다 4명(3.2%), 나빠졌다 7명(5.6%), 별 변화 없다. 25명(20.2%), 좋아졌다 57명(46.0%), 매우 좋아졌다 31명(25.0%)로 나타났다. 가장 바꾸고 싶은 신체부위는 눈 11명(8.9%), 코 10명(8.1%), 입 40명(32.3%), 턱 29명(23.4%), 얼굴형태 18명(14.5%), 없다 6명(4.8%), 기타

10명(8.1%)로 나타났다. 교정 치료 후 원하는 결과는 발음 4명(3.2%), 칫솔질 4명(3.2%), 외모 107명(86.3%), 음식물 섭취 3명(2.4%), 소리나 통증 2명(1.6%), 기타 4명(3.2%)로 나타났다. 부정교합으로 불편한 점은 자신감 결여(28.2%), 일의 능률저하 13명(10.5%), 나서기가 싫다 26명(21.0%), 신경 쓰지 않음 31명(25.0%), 전혀 지장 없다 19명(15.3%)로 나타났다. 교정 치료 후 성격변화는 매우 신경질적이 되었다 2명(1.6%), 신경질적이 되었다 9명(7.3%), 별 변화는 없다 37명(28.8%), 안정적이 되었다 54명(43.5%), 매우 안정적이 되었다 22명(17.7%)로 나타났다. 교정 치료 후 대인관계는 매우 나빠졌다 4명(3.2%), 나빠졌다 5명(4.0%), 별 변화 없다 20명(16.1%), 좋아졌다 61명(49.2%), 매우 좋아졌다 34명(27.4%)로 나타났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orthodontic Patients

Characteristic	Parameter	Number(N)	Percentage(%)
Purpose of the orthodontic treatment	발 음	6	4.8
	칫솔질	4	3.2
	외 모	97	78.2
	음식물 섭취	3	2.4
	소리나 통증	3	2.4
	기 타	11	8.9
person who motivate orthodontic treatment	본 인	56	45.2
	친구나 동료	16	12.9
	가족, 친지	43	34.7
	치과의사	7	5.6
	기 타	2	1.6
Experience of being ribbed	전혀 그렇지 않다	11	8.9
	별로 그렇지 않다	9	7.3
	그저 그렇다	53	42.7
	약간 그렇다	41	33.1
	매우 그렇다	10	8.1

Characteristic	Parameter	Number(N)	Percentage(%)
Change of Self-confidence after orthodontic treatment	매우 나빠졌다	4	3.2
	나빠졌다	7	5.6
	별 변화 없다	25	20.2
	좋아졌다	57	46.0
	매우 좋아졌다	31	25.0
Most wanted part of body to change	눈	11	8.9
	코	10	8.1
	입	40	32.3
	턱	29	23.4
	얼굴 형태	18	14.5
	없다	6	4.8
	기타	10	8.1
Expected result after orthodontic treatment	발 음	4	3.2
	치솔질	4	3.2
	외 모	107	86.3
	음식물 섭취	3	2.4
	소리나 통증	2	1.6
	기 타	4	3.2
Discomfortable facts caused by malocclusion	자신감 결여	35	28.2
	일의 능률저하	13	10.5
	나서기가 싫다	26	21.0
	신경 쓰지 않음	31	25.0
	전혀 지장 없다	19	15.3
Change of personality after orthodontic treatment	매우 신경질적이 되었다	2	1.6
	신경질적이 되었다	9	7.3
	별 변화는 없다	37	29.8
	안정적이 되었다	54	43.5
	매우 안정적이 되었다	22	17.7
Social relationship after orthodontic treatment	매우 나빠졌다	4	3.2
	나빠졌다	5	4.0
	별 변화 없다	20	16.1
	좋아졌다	61	49.2
	매우 좋아졌다	34	27.4
Total		124	100

3. 자아존중감특성

교정치료환자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 오차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에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에서 높

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 '나에겐 친구가 많다'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는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주시다'에서 높게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self-esteem in each subcategory

Parameter	Component	Category	M±SD
self-esteem	general self-esteem	나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3.5±0.9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3.6±0.9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할 수 있다.	3.3±1.0
		내 문제는 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3.5±0.9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3.5±0.9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3.5±0.9
	sociable self-esteem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3.5±0.9
		나에겐 친구가 많다.	3.8±0.9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3.4±0.7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좋아한다.	3.5±0.8
		나는 남을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3.4±1.0
		나는 남에게 좋은 친구이다.	3.6±0.7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을 귀담아 들어준다.	3.6±0.8
	domestic self-esteem	친구들은 주로 내 생각에 따른다.	3.6±0.7
		나는 원하면 항상 친구를 사귄다.	3.6±0.9
		부모님은 내 기분을 잘 맞춰 주신다.	3.5±0.8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주신다.	3.8±0.9
		나는 집에서 상당히 행복하다.	3.5±0.8
	나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진다.	3.3±1.0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	3.7±0.9	
	우리 가족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	3.7±0.8	
	나는 좋은 아들(딸)이다.	3.5±1.0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만하다.	3.3±0.9

4. 일반적 특성 및 교정치료특성과 자아존중감

하위요인별 영역 차이분석

1)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하위요인별 차이분석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별 총체적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성별, 나이, 교육정도, 가족 월수입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일 때, 나이는 21~25세 일 때, 교육정도는 높을수록, 가족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총체적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별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성별, 나이, 직업, 교육정도, 가족 월수입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일 때, 나이는 21~25세 일 때, 직업이 관리직일 때, 교육정도는 높을수록, 가족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별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성별, 나이, 직업, 교육정도, 가족 월수입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일 때, 나이는 21~25세 일 때, 직업이 관리직일 때, 교육정도는 높을수록, 가족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5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하위요인별 차이분석

Characteristic	Parameter	●general self-esteem	●sociable self-esteem	●domestic self-esteem
Gender	Male	3.32±0.43*	3.36±0.41*	3.38±0.42*
	Female	3.59±0.60	3.67±0.48	3.63±0.56
Age	≥ 15	3.02±0.29**	3.11±0.33**	3.17±0.40**
	16~20	3.40±0.57	3.52±0.45	3.42±0.61
	21~25	3.89±0.51	3.93±0.37	3.88±0.39
	26 ≤	3.77±0.41	3.78±0.31	3.80±0.37

Characteristic	Parameter	general self-esteem	social self-esteem	domestic self-esteem
Occupation	professional	3.73±0.52	3.97±0.35**	3.76±0.38**
	official/administrative	3.93±0.43	3.93±0.42	4.10±0.36
	service/salesman	3.47±0.57	3.78±0.37	3.71±0.51
	student	3.43±0.60	3.46±0.49	3.42±0.54
	housewife	3.61±0.19	3.78±0.11	3.67±0.07
	inoccupation	3.71±0.43	3.65±0.30	3.96±0.44
Education	Primary school	3.15±0.31**	3.05±0.44**	3.20±0.47**
	middle school	2.79±0.23	3.11±0.21	3.05±0.31
	high school	3.31±0.55	3.42±0.41	3.35±0.58
	university	3.82±0.47	3.85±0.37	3.83±0.41
	graduate school	3.92±0.35	4.17±0.07	3.88±0.00
Religion	christian	3.45±0.53	3.52±0.46	3.52±0.50
	catholic	3.42±0.75	3.78±0.54	3.56±0.49
	buddhist	3.57±0.56	3.60±0.49	3.53±0.55
	els	3.62±0.58	3.60±0.52	3.64±0.52
	none	3.62±0.71	3.80±0.48	3.75±0.66
Family income(10,000 won/month)	≥ 199	3.26±0.67*	3.25±0.58**	3.39±0.60**
	200-299	3.32±0.54	3.34±0.43	3.32±0.49
	300-399	3.40±0.47	3.59±0.38	3.30±0.48
	400 ≤	3.73±0.57	3.80±0.45	3.83±0.45

2) 교정치료 특성과 자아존중감 하위요인별 차이분석
 응답자의 특성별 총체적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교정치료의 동기, 교정치료의 권유자, 교정치료 후 자신감변화, 부정교합으로 불편한 점, 교정치료 후 성격변화,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로 나타났다. 교정치료의 동기에서는 외모, 교정치료의 권유자는 본인, 자신감이 변화가 나쁠수록, 부정교합으로 불편한 점이 자신감 결여일 때, 교정치료 후 성격이 나쁘게 변했을 때,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가 나빠졌을 때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응답자의 교정치료 특성별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교정치료의 동기, 교정치료의 권유자, 교정치료 후 원하는 결과, 교정치료 후 성격변화, 교

정치료 후 대인관계로 나타났다. 교정치료의 동기에서는 외모, 교정치료의 권유자는 본인, 교정치료 후 원하는 결과가 외모일 때, 교정치료 후 성격이 나쁘게 변했을 때,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가 나빠졌을 때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응답자의 교정치료 특성별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교정치료의 동기, 교정치료 후 자신감 변화, 교정치료 후 성격변화,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로 나타났다. 교정치료의 동기에서는 외모, 자신감이 변화가 나쁠수록, 교정치료 후 성격이 나쁘게 변했을 때,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가 나빠졌을 때 일반적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Table 6 교정치료 특성과 자아존중감 하위요인별 차이분석

Characteristic	Parameter	general self-esteem	social self-esteem	domestic self-esteem
Purpose of the orthodontic treatment	발 음	2.81±0.48*	3.11±0.27*	2.94±0.55*
	치솔질	3.25±0.31	3.25±0.43	3.06±0.59
	외 모	3.59±0.56	3.67±0.44	3.65±0.52
	음식물 섭취	3.61±0.34	3.93±0.25	3.96±0.19
	소리나 통증	3.39±0.97	3.30±1.00	3.33±0.68
	기 타	3.56±0.64	3.40±0.65	3.47±0.37

Characteristic	Parameter	general self-esteem	social self-esteem	domestic self-esteem
person who motivate orthodontic treatment	본 인	3.61±0.55*	3.63±0.50*	3.59±0.55
	친구나 동료	3.93±0.55	3.88±0.48	3.79±0.54
	가족, 친지	3.33±0.57	3.43±0.46	3.45±0.54
	치과의사	3.26±0.40	3.70±0.22	3.66±0.22
	기 타	3.42±0.11	4.00±0.31	3.88±0.17
Experience of being ribbed	전혀 그렇지 않다	3.67±0.51	3.53±0.51	3.57±0.55
	별로 그렇지 않다	3.28±0.62	3.53±0.51	3.51±0.61
	그저 그렇다	3.56±0.58	3.69±0.50	3.64±0.54
	약간 그렇다	3.48±0.51	3.55±0.41	3.54±0.49
	매우 그렇다	3.67±0.85	3.54±0.67	3.45±0.69
Change of Self-confidence after orthodontic treatment	매우 나빠졌다	3.37±0.58*	4.19±0.29	3.43±0.55*
	나빠졌다	3.00±0.13	3.40±0.36	3.13±0.47
	별 변화 없다	3.57±0.70	3.60±0.56	3.55±0.62
	좋아졌다	3.65±0.51	3.64±0.45	3.69±0.45
Most wanted part of body to change	매우 좋아졌다	3.83±0.49	3.52±0.50	4.13±0.32
	눈	3.74±0.53	3.71±0.30	3.77±0.54
	코	3.30±0.63	3.44±0.38	3.23±0.68
	입	3.49±0.60	3.63±0.53	3.58±0.56
	턱	3.48±0.54	3.52±0.52	3.47±0.52
	얼굴 형태	3.64±0.64	3.66±0.54	3.83±0.45
Expected result after orthodontic treatment	없 다	3.81±0.57	3.74±0.26	3.71±0.38
	기 타	3.53±0.51	3.60±0.48	3.50±0.36
	발음	3.79±0.28	3.86±0.39*	3.47±0.50
	치솔질	3.67±0.40	3.86±0.26	3.75±0.72
	외모	3.52±0.60	2.89±0.25	3.58±0.54
	음식물 섭취	3.44±0.69	3.56±0.33	3.54±0.50
	소리나 통증	4.25±0.35	4.06±0.39	4.13±0.00
Discomfortable facts caused by malocclusion	기타	3.33±0.19	3.61±0.48	3.19±0.07
	자신감 결여	3.82±0.49*	3.80±0.45	3.75±0.45
	일의 능률저하	3.17±0.36	3.44±0.57	3.54±0.38
	나서기가 싫다	3.36±0.56	3.48±0.40	3.47±0.45
	신경 쓰지 않음	3.54±0.62	3.53±0.50	3.55±0.58
Change of personality after orthodontic treatment	전혀 지장 없다	3.49±0.61	3.64±0.49	3.48±0.74
	매우 신경질적	3.39±0.48*	3.43±0.37*	3.47±0.40**
	신경질적	3.07±0.53	3.28±0.39	3.00±0.71
	별 변화는 없다	3.68±0.57	3.68±0.49	3.69±0.49
Social relationship after orthodontic treatment	안정적	3.54±0.59	3.65±0.50	3.61±0.52
	매우 안정적	4.25±0.11	4.39±0.07	4.38±0.17
	매우 나빠졌다	2.67±0.40**	3.22±0.31**	2.72±0.42**
	나빠졌다	3.57±0.60	3.51±0.53	3.55±0.62
Social relationship after orthodontic treatment	별 변화 없다	3.21±0.48	3.30±0.49	3.33±0.47
	좋아졌다	3.56±0.57	3.61±0.49	3.59±0.54
	매우 좋아졌다	3.77±0.51	3.84±0.36	3.80±0.42

5.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²=0.439).

Table 7 Influence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n the Self-Esteem

Variable	B	Deviation	β	p
성 별	.079	.086	.067	.364
나 이	.074	.058	.156	.200
직 업	-.018	.017	-.077	.306
교육정도	.177	.057	.368	.003
종 교	.040	.024	.119	.096
월수입	.076	.039	.156	.049
R ² =0.439				
Adjusted R ² =0.410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²=0.200).

Table 8 Influence of Characteristics of orthodontic Patients on the Self-Esteem

Variable	B	Deviation	β	p
Purpose of the orthodontic treatment	0.061	0.047	0.132	.161
person who motiave orthodontic treatment	-0.017	0.040	-0.041	.818
Experience of being ribbed	0.001	0.041	0.002	.835
Change of Self-confidence after orthodontic treatment	-0.021	0.046	-0.043	.000
Most wanted part of body to change	0.006	0.027	0.019	.708
Expected result after orthodontic treatment	-0.078	0.066	-0.118	.149
Discomfortable facts caused by malocclusion	-0.018	0.025	-0.069	.422
Change of personality after orthodontic treatment	-0.069	0.049	-0.129	.084
Social relationship after orthodontic treatment	0.190	0.045	0.369	.013
R ² =0.200				
Adjusted R ² =0.137				

*p<0.05, **p<0.01, ***p<0.001

IV. 고 찰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소재한 교정전문치과 5곳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정치료특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관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교정치료가 교정환자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교정환자들의 심리상태를 인지하여 교정환자의

상담과 교정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총체적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성별, 나이, 교육정도, 가족 월수입, 교정치료의 동기, 교정치료의 권유자, 교정치료 후 자신감변화, 부정교합으로 불편한 점, 교정치료 후 성격변화,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성별,

나이, 직업, 교육정도, 가족 월수입, 교정치료의 동기, 교정치료의 권유자, 교정 치료 후 원하는 결과, 교정치료 후 성격변화,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로 나타났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성별, 나이, 직업, 교육정도, 가족 월수입, 교정치료의 동기, 교정치료 후 자신감변화, 교정치료 후 성격변화,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정도, 가족의 월수입,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교정환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20세 이하가(50.8%)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했고, 이는 미용성형수술을 연구한 김영주(2006)의 연구(58.2%)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며, 이 결과는 20대 이하가 교정치료와 미용성형에 가장관심이 있음을 나타낸다.

교정환자들이 교정치료를 받으려는 목적은 외모(78.2%)로 김영주(2006)의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교정치료를 받기로 결정하는데 권유자는 본인(45.2%)으로 안은희(2003)의 연구와 김영주(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본인이 자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결과로는 성별이 남자일 때보다 여자일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용성형수술 환자들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임소연(2001)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 이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가족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경제적인 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였다.

교정치료 특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결과로는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가 좋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치료를 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변화로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사회생활에 자신감이 생겨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5개 교정전문치과에 내원한 환자로 한정하였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교정환자에게 일반화 시키는 어려운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표본 수의 증가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교정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교정치료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연관성을 알아보고, 교정치료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심리적영향을 알아보고자 대구에 소재한 교정전문 치과의원 5곳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2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124매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정도, 가족의 월수입,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교정환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20세 이하가(50.8%)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했고, 이 결과는 20대 이하가 교정치료와 미용성형에 가장관심이 있음이 나타났다.

3. 교정치료 특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결과로는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가 좋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강혜경, 유영규. 1991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정교합 빈도에 관한 연구. *대치교정지*, 22(3): 691-701, 1992.
- 곡덕부, 박동욱, 경희문. 경북대학교 병원 교정과에 내원

- 한 부정교합 환자의 분포 및 변동추이. *대치교정지*, 19(3): 35-47, 1989.
- 김송숙, 김동기, 황충주, 박종연. 치아상태의 관련요인과 인식이 교정치료 시기에 미치는 영향. *대한치과의사협회지*, 38(5): 452-465, 2000.
- 김영주. 지방흡입술 전, 후 신체상, 자기존중감 및 진료만족도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경아. 치과교정환자와 일반치과환자의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백형선, 김경호, 박열.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교정과에 내원한 부정교합 환자의 분포 및 경향에 관한 연구. *대치교정지*, 25(1): 87-100, 1995.
- 손우성, 박우경, 김옥규. 악교정 수술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평가. *대치교정지*, 28(2): 231-236, 1998.
- 안은희. 미용성형수술환자의 병원선택요인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양규호, 최남기. 전남대학교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부정교합 환자에 관한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7(1), 2000.
- 이금용. 외모가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1: 1-18, 1998.
- 이신재. 수술-교정치료 환자의 통재 소재. *대치교정지*, 32(4): 235-240, 2002.
- 임소연. 미용성형수술 환자와 일반인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정민호. 부정교합과 교정치료가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대치교정지*, 37(1): 56-64, 2007.
- 정민호, 허욱, 박승학. 부정교합이 성인 여자대학생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대치교정지*, 38(6): 388-396, 2008.
- 최보기와 전귀연.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 (SEI)의 구성타당도 연구. *경북대학교논문집*, 24: 1-15, 1992.
- Brown KM, McMahon RP, Biro FM, Crawford P, Schreiber GB, Similo SL. Changes in self-esteem in black and white girls between the ages 9 and 14 years. *J Adolesc Health*, 23: 7-19, 1998.
- Coopersmith S.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W.H. Freeman, 1967.
- Crystal DS, Watanabe H, Weinfurt K, Wu C. Concepts of human differences: a comparison of American, Japanese and Chinese children and adolescents. *Dev Psychol*, 34: 714-722, 1998.
- Goldstein RE. Study of need for esthetics in dentistry. *J Pros Dent*, 21(6): 589-598, 1969.
- Gosney MBE. An investigation into some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sire for orthodontic treatment. *British J Ortho*, 13: 87-94, 1986.
- Jacobson A. Psychological Aspects of Dentofacial Esthetics and Orthognathic Surgery. *Angled Orthodo*, 54(1): 18-54, 1984.
- Jung MH. Effects of malocclusion and orthodontic treatment 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Korean J Orthod*, 37: 56-64, 2007.
- Kilpelainen PVJ. Anterior tooth position and motivation for early treatment. *Angle Orthod*, 63(3): 171-174, 1993.
- Lagerstrom L, Stenvik A, Espeland L, Hallgren A. Outcome of a scheme for orthodontic care: a comparison of untreated and treated 19-years-olds. *Swed Dent J*, 24: 49-57, 2000.
- Macgregor FC. Social and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dentofacial disfigurement. *Angle Orthod*, 72(10): 460, 1977.
- Reichmuth M, Greene KA, Orsini MG, Cisneros GJ, King GJ, Kiyak HA. Occlusal preceptions of children seeking orthodontic treatment: impact of ethnicity and Kinoeconomic status. *Cis J orthod Dentofacial Orthop*, 128: 575-582, 2005.

Secord PF, Backman CW. Malocclusion and psychological factors. J Am Dental Association, 59(11): 931-938, 1959.

Shaw WC, Meek SC, Jones DS. Nicknames, teasing, harassment and the salience of dental features among school children. Br J Orthod, 7: 75-80, 1980.

Thompson LA, Malmberg J, Goodell N, Boring RL. The distribution of attention across a talker's face. Discourse Process, 38: 145-68, 2004.